삼성전자 '더 프레임'으로 美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명작 만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97383?sid=101

삼성 아트 스토어에 반 고흐·에드가 드가 작품 등 38점 선보여(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으로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한 명작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더 프레임' 통해 美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명작 만난다(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TV '더 프레임'을 통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작품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더 프레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작품. 2023.9.17.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삼성전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빈센트 반 고흐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에드가 드가의 '무대 위의 발레 리허설', 앙리 루소의 '사자의 식사' 등 세계적인 명작 38점을 엄선해 삼성 아트 스토어에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세계적인 미술 거장의 작품과 전 세계 유명 미술관·갤러리가 소장한 2천300여점의 작품을 4K 화질로 감상할 수 있는 아트 콘텐츠 구독 서비스다. 최근에는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아트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초현실주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의 유명 작품 12점과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토일렛페이퍼의 작품 20점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추가했다. 김상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상징적인 파트너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